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에 올인”

신년 기자회견

경제정책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고용부진,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
‘규제개혁’ 위해 사회적 대화협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문 대통령은 새해 최대 과제로 경제 활력을 위한 고용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꼽은 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점은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타협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한국이 (경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김정은의 답방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현

“공청회 추진하겠다”...3월 금융사 주총 앞두고 쟁점 부상

윤석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시들어진 노동이사제 논의가 3월 금융회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원장은 10일 이투데이와 만나 “아직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이사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당초 윤 원장은 지난해 노동이사제를 금융 혁신 방안 핵심 과제로 삼고, 공청회를 개최할 복안이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해 국내 도입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발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도입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무기한 지연됐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다. 유럽권 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통상 노조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다만 윤 원장이 현재 민간 금융회사에 도입하려는 것은 좁은 의미의 노동이사제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다. 노조가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시절부터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혁신위는 2017년 최종 권고안에서 “낙산 방지, 지배구조 투

명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했다.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 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 기업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반대했다.

올해도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된 이후에 금융회사 도입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관련) 지난번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공청회 관련 내용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올해도 사외이사를 추천할 방침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4 거래량 현황

세계 순위	거래소	일일 거래량	비고
1위	빗썸	36만8466BTC(약 1조6570억 원)	12개국 거래소 연합 출범(BXA)
25위	업비트	5만1738BTC(약 2317억 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진출
71위	코인원	2565BTC(약 114억 원)	몰타 신규 거래소 출범
74위	코빗	2088BTC(약 93억 원)	유럽 거래소 비트스탬프와 연동 가능성



※ 출처: 코인월스

가상화폐 거래소, 글로벌사업 박차

빗썸, 외국계 은행 ‘금융통’ 대표 발탁...코빗, 해외거래소 인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외국계 은행 출신 금융전문가를 대표로 발탁하는가 하면, 유명 사업가가 직접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최재원 신임 대표는 외국계 은행 출신의 ‘금융통’이다.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취득 이후 한영회계법인, 바클레이즈은행·증권 등 외국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 대표는 최근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리즈원(SeriesOne)에 투자하는 등 빗썸의 미국 진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최 대표가 빗썸을 주축으로 10개국 이상의 거래소를 연결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BXA) 프로젝트’를 연내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XA프로젝트가 안착하면 글로벌 최대 거래소의 입지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은 김정주 NXC 대표의 지원 아래 세계 시장 확장을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최근 게임 사업을 정리하고, 블록체인을 주력으로 한 신사업에 매진할 것이라 뜻을 밝혔다. 이미 유럽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를 인수한 상태다. 그는 과거에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관심을 두고 수시로 코빗을 방문하는 등 미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코빗과 비트스탬프 등 김 대표가 확장한 거래소들 간 교차 거래 지원 등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빗과 비트스탬프의 거래량을 합치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연이어 거래소를 출범했다. 가상화폐 규제가 국내보다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태국에도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는 등 꾸준히 보폭을 늘리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몰타 소재의 거래소 씨엑스(CGEX)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CGEX는 코인원 한국 거래소를 시작으로 코인원 해외 거래소의 연동을 통해 글로벌 오더북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풍부한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올해 집값 1% 떨어질 것”

한국감정원, 주택 거래 5.5% 감소·전셋값 2.4% 하락 전망

올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는 물론 거래량까지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201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개

편, 규제지역 추가 등 정부 규제정책,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물량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국지적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입주 물량 증가, 정부 규제 및 지역산업 위축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 원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둔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매수심리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가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9년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2.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의 경우 정부 규제정책 기조 속에서 투자자의 매수심리 위축 및 실수요자의 관망세 유지로 주택 구입 보류 또는 구입 시기 조정 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9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수준(81만 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시,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청년 투자기금 마련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서울시가 6대 융합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취약지역에 제3기 철도망을 구축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19~2022)'을 10일 발표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 아래 현장·혁신·형평을 3대 기조로,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정 운영 4개년 계획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등 5개 목표 총 176개 과제를 수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등

5개 목표·총 176개 과제 수립

"사회 격차 해소 통한 상생 발전"

립했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의 5대 전략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이다. 서울시는 4년간 연평균 41만 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우선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주요 핵심과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산업경제	① 4차 산업혁명 메카,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② 관광·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청년·노동·문화	④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⑥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⑦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안전·환경·교통	⑧ 안전 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 안전관리 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⑩ 보행 친화도시 추진 ⑪ 지역간 조화, 균형적 철도망 구축

※ 출처: 서울시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복지·건강·돌봄·교육	⑩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원 설치 ⑪ 지역 건강 포털케어·보건의료체계 강화 ⑫ 돌봄 SOS센터 설치 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 지원 강화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도시계획·산업재생·주택·주거재생·사회적경제	⑭ 정부협력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⑮ 균형발전 종합정책 추진 ⑯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⑰ 주거재생사업,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성평등·합치·자치·남북교류·지역상생	⑲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노동정책 구현 ⑳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㉑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㉒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㉓ 지방과 서울,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시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

행 친화 도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나선다. 현재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43.3%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건설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가 노동, 복지 등 시민 권리를 회복한 시기였다면 민선7기에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를 상생 발전을 이뤘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조성진의 선택과 집중... "자원 재배치 통해 수익성 강화"

〈LG전자 부회장〉

조성진<사진> LG전자 부회장이 성장과 변화를 위해 전사적인 자원 재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OI(투자자본수익률)가 나오지 않는 부문에 무작정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익성 기반 성장 사업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5G 등 선제적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육성사업에 자원을 재배치해 지속가능 성장의 토대를 탄탄히 할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자원은 사람일 수도 있

"지속 발전 가능 분야 집중투자 AI·자율주행·5G 등 선제 대응 수익 없는 투자 하지 않을 것"

고, 시설설비, 광고마케팅일 수도 있다"며 "투자를 해도 ROI가 안 나오면 무작정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능 차이 없이 디자인만 바꾸는 투자를 줄이고 본연의 성능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는 인력, 자본, 시스템 등 자



원을 집중 투입해 조기에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생활·공공·산업·웨어러블·엔터테인먼트·로봇 등

총 5가지 카테고리 로봇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지난해에도 로봇사업 전체의 손익 분기점은 2~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잔디깎이 로봇은 출시 초읽기에 들어

간 상태다. 조 부회장은 "잔디깎이 로봇 제품은 완성이 다 됐다. 미국에서 실험중이고 곧자암 골프장에도 풀어놓고 거친 잔디, 부드러운 잔디 등에서 다양하게 시험 운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차량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 ZKW를 인수한 것처럼 올해도 인수·합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어느 회사를 사야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50곳 정도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합작법인(JV)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고민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지주사 중심으로 벤처캐피털

(CVC)을 운영해서 전자·화학에서 출자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LG전자가 어느 정도 펀드를 마련하고 회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사업 부문에 대해선 "폼 팩터(하드웨어)상의 변화가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다른 회사보다 빨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밖에서 보기에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철수하거나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롤러블 TV에 대해서는 "상담이 많이 잡혀 있다. 어제 3~4곳, 오늘도 3곳 정도"라며 "내부 사람들 말로는 롤러블만큼 혁신적으로 변화를 준 부분은 없다고 들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천연가스로, 깨끗하 Go 안전하 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 이뤄질 것”

남북문제

“北 과감한 비핵화 조치 취해야
김정은에 성의 다해 친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북미 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말 머지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先) 북미 정상회담, 후(後) 답방’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어떻게든 남북 정상 마주 앉아서 북미 회담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남북 발전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이 이뤄져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비핵화를 계속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싱가포르서 합의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라며 “북미 간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2차 북미회담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도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고 답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왼쪽). 김병준(오른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시청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스



“신재민, 좁은 세계로 판단… 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수사 대상”

정치

“한일문제, 日 겸허한 입장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제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

했다.

이어 “정책 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김 행정관이 한 검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경제계 반응

“혁신성장 통한 경제 살리기 의지 환영… 규제 개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나타내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시켜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기업가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규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기한국무역협회혁신성장본부장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규제 해소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

여 환영한다”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정책본부장은 “성장을 통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와 협업해서 경제 발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권력기관, 국민 실망시킨 일 한 건도 없어”

사회

“생활적폐 속도감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에서 정권을 향한 도덕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

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옮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현직 언론인을 참모로 기용한 데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권언유착 관계는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고,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캐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워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장벽 협상’ 박찬 트럼프…글로벌시장 ‘2011년 데자뷔’?

“셋다운 계속엔 트리플A 잃을수도”
8年前 美 신용강등 증시폭락 ‘악몽’
부채한도 증액 악영향…재정마비 우려
美 연준, 금리인상 아예 차단 가능성

장기화하는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중지)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와 더불어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글로벌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8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부문 글로벌 대표는 9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셋다운이 계속되면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에산국(CBO)의 수치를 눈여겨보고 있다. 시간을 들여 살펴보면 향후 10년에 걸쳐 정부 예산에서 이자 부담이 확실하게 높아질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상쇄하려면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확대돼 부채 이자를 갚고자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미국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셋다운은 이날로 19일째를 맞아 역대 최



‘국경장벽’ 협상 결렬

미국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셋다운 해소를 위한 ‘국경장벽’ 협상이 결렬된 이후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주요 신용사별 미국 국가신용등급 (2019년 1월 현재)

신용등급	전망
무디스 → Aaa	안정적
S&P → AA+	안정적
피치 → AAA	안정적

장이던 빌 클린턴 전 정부의 21일에 육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셋다운 해소를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 이슈

를 놓고 이날 의회 지도부와 협상했으나 민주당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자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아 셋다운 해소에 대한 기대를 꺾었다.

맥코맥 대표는 셋다운이 부채한도 증액에 악영향을 주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셋다운이 3월 1일까지 이어지면 수개월 후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정책 틀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무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트리플A’와 부

합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한도 상한선은 20조 달러(약 2경2370조 원)이나 전문가들은 의회가 새롭게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3월 1일에 실제 부채는 2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회가 그 전까지 한도를 증액해야 하는데 셋다운이 계속되면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간을 넘기면 수개월 후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이 마비 상태에 이

르면 경기둔화가 올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미 미국의 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도 재정수지가 이처럼 악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무디스의 빌 포스터 부사장도 “국가신용등급은 다른 모든 신용의 기초가 된다. 등급이 강등되면 미국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한다”며 “이는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2011년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당시 S&P는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이유로 70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패권에 금이 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S&P가 강등을 결정한 바로 다음 월요일인 8월 8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5~6%대 폭락하는 ‘블랙먼데이’가 일어났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어깨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당분간 보류하고 더 나아가 중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제프-매켄지 베이조스 부부.

AP연합뉴스

세계 최고 갑부 베이조스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54)와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48)가 9일(현지시간)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재산의 분할과 그 과정에서 아마존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도 내주게 된

에 깊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로서 친구로서 벤처와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로서, 벤처와 모험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멋진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들은 베이조스의 자산이 1370억 달러(약 145조821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의 재산 분

할에도 주목

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 외에

도 우정투자

기업블루오

리진의 창립

베이조스 부부 결혼 25년 만에 파경 “친구로 지낼 것”

145兆 분할 주목…워싱턴주 ‘부부 공동재산제’ 채택

아마존 경영권 변동 촉각…최고 부호 타이틀도 내줘

것은 물론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혼 발표문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사랑에 대한 탐색과 시험적인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했다”며 “친구로서 공유된 삶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발표문은 매켄지와 공동 명의로 작성됐으며, 이들 부부가 합의 하에 원만히 헤어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이조스와 매켄지는 발표문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자이며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를 소유하고 있다.

베이조스 부부의 주거지인 워싱턴주는 이혼 시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부부공동재산(communit property)’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베이조스가 매켄지와 똑같이 재산을 분할할 경우 매켄지는 세계 여성 중 최대 부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사상 가장 값비싼 이혼’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사우디·영국BP 대량 매장 유전 발견 잇따라

불확실성 커진 원유시장

수급조절 부담에 시장 변동성 확대

작년 말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유 시장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에너지업체 BP가 새해 들어 연달아 대량의 원유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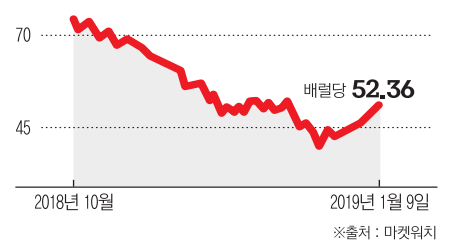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5.2% 급등한 배럴당 52.36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올라 지난달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저점인 지난달 24일의 배럴당 42.53달러에서 23% 상승하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다만 WTI는 지난해 10월 초 찍었던 4년 만의 최고

치(배럴당 76.41달러)보다는 31%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과 유가 안정에 나선 사우디의 움직임이 호재로 작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우디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0달러까지 끌어올리려 한다며 추가 감산을 통해 원유 수출량을 이달의 하루 약 720만 배럴에서 다음달 710만 배럴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대량의 원유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공급과잉도 새로운 변수 역시 사우디가 제공했다. 사우디는 주요 유전 54곳의 원유 확정 매장량을 실시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약 2685억 배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가 2016년 밝힌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

(단위 : 달러, 현지시간)



2608억 배럴보다 77억 배럴 많은 것이다. 지난달 사우디 하루 평균 산유량인 1060만 배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사우디는 앞으로 약 69년간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영국 BP도 전날 대서양 멕시코만의 자사 소유 유전에서 추가로 1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가뜰이나 원유시장은 셰일 혁명에 따른 미국의 산유량 급증에 지난 수년간 공급과잉 불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수급 조절에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거대한 원유 매장량 확인이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설립 53년 만에 로고 회사명 뺀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가 로고에서 ‘Mastercard’ 글자를 없애고 심볼 이미지만 남기기로 했다.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로고에서 회사명이 빠지는 것은 1966년 설립 이후 53년 만이다.

회사 로고에 사명을 넣지 않고도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애플이나 나이키, 타깃, 스타벅스 등이 이번 변화의 선례가 됐다. 마스터카드의 마케팅 책임자인 라자 라자만



나르는 “사람들이 텍스트 없이도 우리 로고를 식별할 수 있는지 20개월 이상 전 세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회사명이 없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겹쳐진 이미지 로고만으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마스터카드를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변화는 새로운 로고를 만드는 의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스터카드가 향후 금융산업 변화를 고려해 사명에서 ‘카드’를 삭제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이나 카드를 통하지 않는 ‘캐시리스’ ‘카드리스’ 결제나 자금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회사의 성장 범위를 넓혀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트스쿨의 잭 존슨 수석연구원은 “마스터카드가 더 넓은 가상 금융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드러내기 위해 로고에서 이름을 뺀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로고에서 이름을 뺀 것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는 실제로 커피 브랜드이면서도 다른 소매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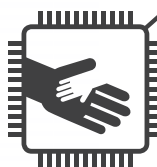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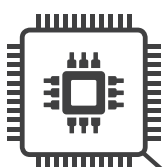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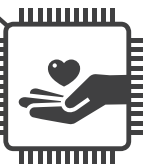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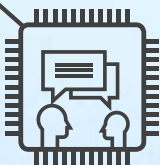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주총 ‘태풍의 핵’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공공 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도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공청회도

러는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3월 금융회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무작정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주택도시

윤석현 금감원장, HUG·한전·코스콤 등 노동이사제 도입 시사 사외이사 추천 의사 밝힌 ‘국민銀 노조’… 파업 갈등 확대 우려

계약 없이 미뤄지는 듯했다. 당초 금감원은 공청회 계획을 접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소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반대도 많아 공공기관 도입 추이를 보고 하려고 일단 미뤄졌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하

보증공사(HUG), 한국전력공사, 코스콤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국민연금공단 노사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중소기업은행(8.15%) 등 공공기관은 물론 KB금융지주(9.62%), BNK금융지주(9.60%), 우리은행(9.29%) 등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5% 이상이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개요		
개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좁은 의미의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추진 일정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노동이사제’ 선정
	2017년 11월	KB국민은행 노조, 임시주총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불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제안
	2018년 3월	KB국민은행 노조, 정기주총 도입 불발
	2018년 4월	금융노조 ‘노동이사제’ 올해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사항에 포함
	2018년 7월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근로자 추천 이사제’ 혁신감독과제 선정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미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B금융지주의 경우 2017년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사외이사 선임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노조 추천 인사인 권순원 속명여대 교수 선출에 반대했으나, 올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19년 만에 파업에 이르는 등 격화된 국민은행 노사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부의 일을 기금 투자 기업과 연결하긴 어렵다”며 “사전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DGB금융지주도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김태오 회장은 이투데이에 “사외이사 선출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CEO 견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스스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

다면 도의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도 건너야 할 장애물은 많다.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소액주주를 설득해 의결정족수(25%)를 채워야 한다. 2017년 KB금융 임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에도 70% 넘는 외국인 주주들이 기권·무효표를 던져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금감원, 부서장 5명 중 4명 교체

10년 만에 최대 규모 인사 단행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부서장 5명 중 4명이 자리를 옮겼다.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 특징으로 △세대교체와 유능한 인재의 발탁 △전문성 중심 배치를 꼽았다. 세대교체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문성을 키워 금융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인사로 1966~68년 생 부국장과 팀장 등 30명이 승진했다. 특히 승진자 가운데 12명은 본부 주요 부서 국실장으로 발탁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권역 간 교체 인사를 줄이고, 직무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했다. 이상민 신입 여신 금융감독국장은 2011년 이후 8년 동안 여신금융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최상

신임 회계관리국장은 2006년 이후 13년간 회계감독 업무를 맡았다. 김성우 신입 은행리스크업무실장은 2010년 이후 9년간, 박진해 신입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2011년 이후 8년간 같은 일을 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 있는 여성도 2명 발탁했다. 박선희 신입 인재교육원 실장은 검사, 조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 교육 업무를 수년간 담당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지연 실장은 IT 검사·분쟁조정 업무 등 현장 경험이 뛰어나 인천시에 파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팀장·팀원 인사를 2월 중순까지 실시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임원(부원장 및 부원장보) 인사는 일부 임원의 반발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노용훈 본부장, 신한은행 정지호 부행장, 메트로은행 안토니오 오캄포 부행장, 메트로은행 이종원 서울지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銀-필리핀 메트로뱅크, 포괄적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필리핀 메트로뱅크(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장, 무역금융 등 트랜잭션뱅킹(Transaction Banking) 협업 △상호 자금 차입 지원 △양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트로뱅크는 해외 유명 금융지인 더 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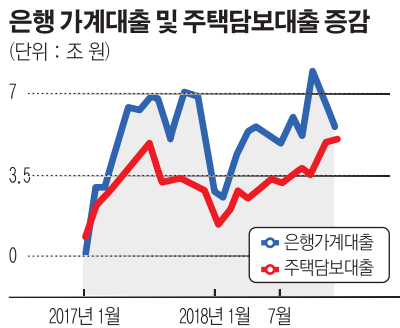
커지가 선정한 필리핀 내 자산규모 2위 은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민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역금융, 해외송금 및 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경기 불황에… 가계도 기업도 ‘錢錢공공’

12월 주담대, 2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전세 대출·입주물량 증가에 4조9000억 늘어난 608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택담보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점차 줄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 보인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 원 증가한 82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증가세로는 2015년 12월 6조9000억 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작년 10월 7조8000억 원 증가를 기록해 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던 이후 2개월째 증가폭은 둔화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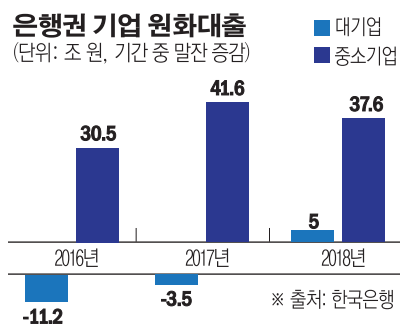
9000억 원 늘어난 607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 원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자금의 한도 소진에 따른 일부 은행 취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공장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1000호를 기록했다. 작년 7월 1만 호를 기록한 이래 6개월

째 1만 호를 넘어선 흐름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4만6000호로 2개월 연속 4만5000호를 넘었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000억 원 증가한 218조5000억 원을 보였다. 이는 2017년 3월 4000억 원 증가 이래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한은은 연말 상여금 지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유재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분양물량의 입주시기가 도래하면서 관련 대출도 있었다. 다만 기타대출은 규제 영향으로 감소했다”며 “1조1000억 원가량 취급했던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차면서 일부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등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기업대출 43조… 3년 만에 최고치

대기업 대출 4년 만에 반등 1년새 5조원 규모 늘어

은행권의 지난해 대기업 대출 잔액이 4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대기업 원화대출이 1년 새 5조 원 규모로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2016년에는 11조2000억 원 감소했고, 2017년에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주력산업에 대



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출은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작년부터 구조조정 국면이 완화되면서 담당아 대출 규모가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은행 원화대출은 42조7000억 원을 기록해 2015년 48조3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보였다. 전체 대출은 2016년 19조

3000억 원으로 크게 준 뒤 2017년 38조1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37조6000억 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16년 30조5000억 원, 2017년 41조6000억 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25조 원 증가해 2016년 21조9000억 원, 2017년 27조8000억 원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12월 기준으로는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각각 2조3000억 원, 4조4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말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황,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기간 회사채도 8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기관의 북클로징 등 연말 요인으로 순상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中 여전히 매력적” 배터리·물류기업들 3兆 규모 투자

LG화학 1.2조 들여 공장 증설

삼성SDI도 1.7조 투자 조율

현대글로벌비스, 선전 지사 설립

“인구·성장성 포기하기 어려워”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투자 규모	투자 내용
LG화학	1조2000억 원 규모	중국 난징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
현대차	1100억 원 규모	중국 칭화연구원 산하 투자기관과 수소에너지 펀드 조성
SK그룹	3000억 원 규모	SK차이나(SK 중국 현지 지주사) 중국 벤처캐피탈 조성 펀드에 투자
삼성SDI	1조7000억 원 규모	중국 시안 전기차 배터리 2공장
현대글로벌비스	미발표	중국 선전 지사 설립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풀이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 기업에 비해 유리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 조치를 통해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을 높였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중국이 투자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도 최근 떠오르는 베트남보다 2배 이상 중국에 대한 투자액이 많다”며 “인구와 성장성을 기업들이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의 44.5%를 차지했던 중국 비중이 지난해 27.6%로 축소되는 한편, 베트남이 17.7%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중국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1위 국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안경무 기자 noglasses@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對) 중국 투자는 줄을 잇고 있다. 중국 정부의 법인세율 조정,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중국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들이 조(兆)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LG화학은 10일 글로벌 배터리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중국 난징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남경 신강(新鋼)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1공장

및 소형 배터리 공장에 2020년까지 각각 6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빈장 경제개발구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도 건설 중이다.

LG화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용 파우치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LEV(Light Electric Vehicle), 그리고 전동공구, 무선청소기 등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비(非) IT(Non-IT)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사업본부장은 “난

징에 위치한 세 개의 배터리 공장을 아시아 및 세계 수출기지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 역시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전시에 지사를 설립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전 지사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신규 화주를 발굴하고, 내륙운송과 수출입 물류를 실시하며 남중국 시장 확대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첫 경제특구인 선전은 첨단 산업과 물류·해운 사업이 발달해 현대글로벌비스가 3차 물류 영업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

소로 평가된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쌓았던 해외물류 역량과 기존 중국 법인들과의 시너지를 결합해 선전지사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은 물론, 홍콩과 베트남 물류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삼성SDI도 중국 시안에 1조7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제2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투자 행보가 지속되는 것은

쌍용차 10년 만에 담보대출 추진

기업회생절차 이후 처음 연구개발·복직 자금 마련

쌍용자동차가 2009년 기업회생절차 이후 처음으로 금융권 담보대출을 추진한다.

10일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융권 신규 대출을 추진 중”이라며 “대주주인 마힌드라 측과 담보 활용을 논의 중인데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창원 엔진공장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추진한 바 있다.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법원 판단 이후였다. 쌍용차는 기업회생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채권단 반대로 무산됐다. 담보로 제공하려던 창원 공장의 자산가치도 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동안 쌍용차는 당좌거래와 영업익의 재투자 방식을 통해 운영 및 신차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해 왔다. 여신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관련 기관의 수출자금의 도움을 받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신

차 판매 증가로 2014년 770억 원에 달했던 쌍용차의 영업손실은 2016년에는 280억 원 흑반전했다. 2017년 대외 경영환경 탓에 다시 영업손실 규모가 65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차 판매와 영업이익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본격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 결국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 및 해고자 복직에 따른 고용안정자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금융투자업계는 담보대출 규모를 4000억~5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평택공장 인근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자산가치가 ‘조(兆)’ 단위를 넘어선 만큼, 담보설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금융권 담보대출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영업활동만으로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회사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 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 기자 junior@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취임 첫 행선지는 ‘현장’

허세홍(사진) GS칼텍스 신임 대표이사(사장)가 취임 이후 첫 행선지로 ‘현장’을 택했다. 허 사장은 대전 기술연구소와 여수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에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을 당부했다.

허 사장은 10일 대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허 사장은 “기술연구소가 회사 경영 기조인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달성을 위한 올레핀생산시설(MFC)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부가화학·소재 등 미래성장 사업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만의 핵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질적 성장’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GS칼텍스는 올해 △석유화학 사업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MFC 프로젝트의 추진과 완수 △비즈니스 프로세

스 혁신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환경규제 및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 등 산업 전반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날 허 사장은 ‘인재’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기조 달성을 위한 실행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구성원 간 진정한 ‘소통’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언제든 적극적으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견 개진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허 사장은 11일 여수공장을 방문한다. MFC 부지에 둘러 건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허 사장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만나며 새로운 사업 기회도 구상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알리바바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 개장한 미래형 ‘페이주부커 호텔’ 식당에서 한 손님이 로봇이 가져온 접시를 집고 있다. 항저우/신화연합뉴스

“중국 AI 인재, 한국의 7배”

무역협회 시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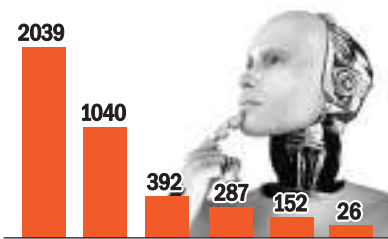
중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가 한국의 7배에 달하는 등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본 2018년 중국 AI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 인재는 1만8232명으로 미국(2만8536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2664명으로 중국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기업의 양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한다. 중국의 AI 기업은 1040개로 세계 AI 기업의 20.8%를 차지했다. 베이징은 세계에서 AI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412개)로 나타났다. 한국의 AI 기업은 26개로 중국의 40분의 1에

국가별 AI 기업 수

(단위: 개사)



기업 수 무려 40배 많고
18년간 특허 37% 출원
양적·질적으로 앞섰다

그쳤다.

중국은 1999~2017년 세계에서 등록된 10만여 건의 AI 특허 중 37%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나온 AI 기초연구 논

문도 중국이 약 37만 편으로 미국(32만 7000편)은 물론, 일본(9만4000편)과 한국(5만2000편)을 크게 앞섰다.

보고서는 중국의 최신 AI 기술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 접목돼 기술 고도화와 혁신을 촉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AI 스타트업들은 아동 돌봄·교육용 가정로봇, 음성인식 의료진단 솔루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범죄자 식별 등 선도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박소영 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배출된 인재가 지속해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인도 정부, 포스코·현대제철에 합작사 설립 제안

철광석·공장부지 제공 의사 고품질 철강 기술 확보 목적

인도 정부가 고급 철강 제품 확보 차원에서 국내 철강업계 양대산맥인 포스코, 현대제철에 합작 투자를 제안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합작투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국영 철강 기업인 SAIL, RINL 등과 포스코, 현대제철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요청했다.

인도 정부가 제철 원료인 철광석과 공장부지 등을 제공하고 설비와 기술은 한국

업체가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가 한국 철강 기업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자동차 강판 등 고급 철강 제품을 생산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현지 대형 철강사가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자동차 강판 같은 첨단 분야 제품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초고강도 자동차강판 분야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인도에서는 이들 기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포스코는 2012년부터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 연간 45만 톤 생산 규모의 자동차

·가전용 용융아연도금강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간 30만 톤 규모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을 준공했고 2015년에는 연간 180만 톤 생산 규모의 자동차용 냉연강판 공장을 추가로 세웠다. 현대제철은 인도에 자동차강판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열연·냉연 공장은 없다. 인도 정부의 제안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간 1억 톤이 넘는 철강을 생산하는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 조강생산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3억 톤의 조강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자동차 미래를 엿보다

완성차 업체부터 전자 기업까지 'CES 2019'에서 앞다퉀 미래 콘셉트카를 선보이고 있다. ❶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텐의 세단형 전기차 'K-바이트'. ❷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이 적용된 BMW '비전 넥스트'. ❸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레이싱카 '비전 EQ 실버 애로우'. ❹ 미쓰비시 전기차 'EMIRA'.

SK텔레콤 '전장·자율주행' 글로벌 연합전선 구축

하만·싱글레이와 美 차량용 TV·지도 플랫폼 개발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업체와 택시·택배사업 협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모빌리티(Mobility)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IT 업체들과 잇달아 전장(차량용 전자 장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연합을 구축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사장은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 현장에서 모빌리티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협력을 이끌어 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빌리티 영역은 회사의 미래를 만든다는 자긍심으로 도전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모빌리티 사업을 미래핵심 먹거리로 구상해 왔다.

박 사장은 먼저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 '싱글레이' 방송 그룹과 '북미 방송망 기반의 전장용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만은 2017년 삼성전자가 9조 원을 들

여 인수한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업이다. 커넥티드카 및 카오디오 사업에서 24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액을 보유할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싱글레이는 미국 전역에 173개 TV 방송국과 514개 채널을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다.

박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 전역의 차량에서 방송망을 통한 고품질 지상파 방송과 고화질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차량통신기술(V2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통신망 도달 범위 한계, 이동 시 방송 신호 수신 불가 등으로 그동안 차량 내 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박 사장은 이 플랫폼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NAB 쇼 2019'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상용화를 추진한다.

박 사장은 "미디어와 모빌리티는 5G 시대 들어 혁신적 변화를 맞이할 핵심 사업 분야"라며 "각 분야를 선도 중인 하만·싱글



박정호(위 사진 오른쪽) SK텔레콤 사장이 9일 하만·싱글레이 CEO와 전장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래는 같은 날 박정호(가운데) 사장

과 죽스·디에이테크놀로지와의 자율주행 사업화를 위한 MOU 체결 모습. 사진제공 SK텔레콤

레이와 함께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빌리티 사업의 정점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업과 손도 잡았다.

같은날 SK텔레콤은 죽스(Zoox),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SK텔레콤과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공동으로 국내 서비스 개발·운영을, 죽스는 이에 필요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한다. 3사는 국내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보안·관제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죽스는 201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자율주행차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와 함께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총 7억9000만 달러(약 88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가치는 32억 달러(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죽스는 지난해 12월말 미국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일반인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에 일반인 탑승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죽스는 지속적인 시험 운행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전기차에 필요한 2차 전지의 제조 설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00년 설립됐다.

국내 최고 자율주행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가 창립한 토르드라이브(ThorDrive)와 국내 5G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도 마무리했다.

양사는 국내에서 △서울 도심 혼잡지역 대상 자율주행 셔틀 차량 구축 △도시 간 지역의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택시 공급 △물류·배송 기업과 연계한 '라스트 마일(Last Mile, 고객에 상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구간)' 자율주행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

토르드라이브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와 제자들이 2015년 창립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이들이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여의도를 비롯, 복잡한 서울 도심을 3년간 6만km 이상 무사고로 주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7년 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토르드라이브는 이듬해 11월, 미국의 글로벌 건축자재 유통기업인 에이스 하드웨어(Ace Hardware)와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제품들이 'CES 2019'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왼쪽부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로울의 손가방, 자세를 교정해주는 '기린 모니터 스탠드', 주인을 따라가는 코와로봇의 자율주행 '로버스피드 캐리어'.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디스플레이백, 자세 교정 모니터, 자율주행 캐리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기술·제품들이 'CES 2019'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 스타트업 로울이 선보인 폴더블폰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9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19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신기술·제품을 선보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로울이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 폴더블폰 '플렉스파이'를 공개하며 주목받은 로울은 이번 전시회에서 해당 제품을 전시했다. 7.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플렉스파이는 접으면 390X1440픽셀, 펼치면 풀HD보다 조금 더 넓은 1920X1440픽셀의 화면이 나온다. 플렉스파이는 지난해 12

월 예약판매에 돌입해 곧 이동통신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로울은 이외에도 △기존 키보드와 달리 막대형 본체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만 자판을 꺼내 쓸 수 있는 '롤러블 키보드' △디스플레이가 스피커를 감싸는 형태로 스피커에 시각적인 정보를 담은 '스마트 300°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과 같은 제품도 소개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중전에 없었던 기술·제품들을 공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AI(인공지능) 기반 C랩 과제 8개를 선보였다. 그중 기린모니터는 컴퓨터 사용 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주는 모니터 스탠드다. 스탠드에 장착된 센서가 사용자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경우 모니터 기술기와 거리 등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도

하게 한다. 또 난청 환자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 청력 보조 솔루션 '스네일 사운드'와 개인 맞춤형 향수 제조 솔루션 '퍼퓸블렌더'에도 눈길이 쏠렸다.

유진로봇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라이다 센서'와 자율주행 물류배송 시스템 '고카트120'을 선보였다. 라이다 센서는 실내 환경과 사물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기술로 빠르고 정밀하게 환경을 인지해 초소형 장애물 인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바디프랜드는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와 회사가 최초로 개발한 브레인 마사지 기능이 적용된 렉스엘 플러스를 전시했다. 코웨이는 RO멤브레인 필터로 직수를 구현한 '시루직수 정수기'를 비롯해 물·공기·생활 환경 전반을 케어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개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AI 시대 '어제의 적'은 잊어라

LG-MS, 삼성-애플, 인텔-알리바바... '횡종연합' 물결

올해 CES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간의 '횡종연합'이다. IT, 가전, 자동차, 반도체, 통신 업종 간에 활발한 파트너십이 맺어지며 5G·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LG전자와 네이버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19'에서 양사 전시부스를 서로 방문하며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양사는 LG전자의 '클로이 안내로봇(CLOi GuideBot)'에 네이버의 고정밀 위치·이동 통합기술 플랫폼인 'xDM(eXtended Definition & Dimension Map)'을 적용해 로봇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랜딩에이아이(Landing.AI)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랜딩에이아이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앤드류 응(Andrew Ng)이 설립한 회사다. 그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조직인 구글브레인(Google Brain)을 공동 설립해 음성인식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는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다목적 전방 카메라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DSM) 등 AI 기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가상 비서 솔루션 액셀

러레이터를 활용한 음성지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데이터박스(Data Box) 서비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SW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력한다. 삼성 스마트 TV에 아이튠즈 무비 & TV쇼(iTunes Movies & TV Shows, 이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AirPlay 2)를 동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새롭게 출시될 삼성 스마트 TV를 보유한 전 세계 사용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기능을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TV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인텔과 알리바바는 AI 기반의 선수 트레이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2020 도쿄 올림픽과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목표로, 인텔 하드웨어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선수의 3D 형태를 추출하는 최첨단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5G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기업들이 오픈 파트너십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도화하고 재밌게 만드느냐가 다음 숙제 같다"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페이
신한, 페이의 판을 다시 짜다
결제 하는 PAY에서 혜택 받는 PAY로



신한PayFAN

천만 고객이 선택한 신한 FAN의 새 이름, 간편결제 서비스를 넘어, 매 순간 변화하는 고객의 생활에 따라 맞춤 혜택을 드리는 진화된 생활플랫폼입니다. 편리한 금융조화와 상담서비스, 끊임 없는 다양한 플랫폼의 연결로 Pay의 새로운 FAN을 만들어갑니다.

새로워진 신한Pay FAN을 경험해보세요

- 승인알림은 기본, 혜택까지 실시간으로 - Timeline 카드사용 혜택알림 서비스
- 필요한 기능을 원하는 대로 셀프메뉴 구성 - DIY 메뉴 구성
- 금융, 상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 초기화면에서 결제, 금융, 상담까지
-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 없이 연결 - 로그인이 필요 없는 원앱서비스

신한Pay FAN 고객을 위한 특별한 행운!

신한Pay FAN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경품과 포인트적립, 상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행사기간/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Pay FAN 앱의 행사페이지 참조

Lead by  신한카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운숙 회장 “임기 내 5대 경제단체 진입 목표”



정운숙 신임 여경협 회장이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올해로 설립 20주년 맞아
회원수 5000명까지 확대...
한국 경제에 일조할 것
여성기업연구소 설립 추진

정운숙 신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의 5대 경제단체 진입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10일 정 신임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서 당선 소감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로 3년이며, 협회장 취임식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정 회장은 “올해 여경협 설립이 20년째 되는 해인데 회원 확보 면에서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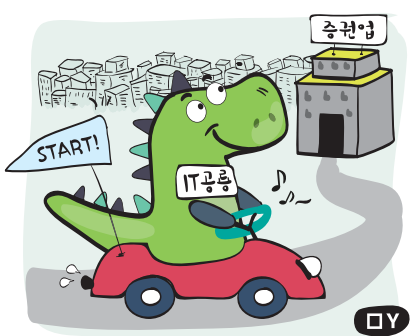
며 “올해 안으로 5000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수를 늘려 한국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 삼아 경제 5단체 여경협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여경협의 회원 수는 현재 2538명이다. 정 회장은 “역대 여경협의 역대 회장들은 6대 경제단체 진입을 목표로 삼아 왔다”며 “5대 경제단체 진입을 목표로 임기 말까지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대 경제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다. 정 회장은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5대 경제단체 진입을 포함해 △협회 기능 개편, △3대 사업 추진, △예산 확대, △여성기업연구소 설립을 내놔다. 특히 여성기업연구소는 여성 기업인이

성장하는 데 기초 자료를 연구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여성 가입률이 지난해 40%를 돌파했다”며 “이러한 자료를 누적해 국회나 대정부 건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회장인 한무경 효림산업 대표이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중소기업 대표로 참가하며 개성공단에 여성기업 전용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전임 회장께서 하신 좋은 사업은 이어받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관련 계획도 이어받아 더 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들이 공유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마다 만들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창업 생존율이 남성 기업인보다 낮는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 이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여성 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회원 서비스 지원팀’을 만들 것”이라며 “취임 전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팀을 통해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애로사항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신임회장은 1990년 7월 국내 세탁업 최초 벤처기업인 우정크리닝을 창업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 2대 지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7년 12월 6일 여경협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돼 지난달 9대 여경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증권업 진출’ 시동 거는 IT공룡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증권업계 진출설에 휘말렸다. 업계에서는 금융부문과 달리 증권부문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성공적으로 증권부문에 진출한다면 생활밀착부문을 모두 다루게 되는 거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증권사 인수를 염두해 두고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증권사 인수와 관련, 네이버 측은 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일 네이버의 종속회사인 ‘라인증권준비회사’는 운영자금 약 2037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198만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구주주배정 증자로 1주당 50주씩 총 100만주의 신주를 배정하고, 제3자 배정 증자로 노무라홀딩스에 98만주의 신주를 주당 10만2885원에 배정한다. 라인증권준비회사는 네이버의 또 다른 종속회사인 ‘라인파이낸셜’이 지난해 6월 1일 설립된 일본 증권 중개·투자



네이버 자회사 ‘라인증권’
2037억 규모 유증 결정
업계 “증권사 인수 실탄 마련”
IT기술-증권산업 시너지
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

컨설팅 업체다.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지만 시기가 미심쩍다. 네이버가 이달 초 자회사 라인플러스를 통해 국내 중소형 증권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직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네

이버가 증권부문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부터 증권사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증권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국내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IT기술이 핵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증권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기술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금융부문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증권,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등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IT와 금융, 증권을 하나로 묶은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증권업계에 도전하는 것은 실제 생활의 많은 것들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과감한 투자와 증권산업 자리매김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빨간불’

21곳 중 빗썸 등 7곳만 정부 보안 점검항목 충족
14곳 보안취약 해킹 위험 노출 시스템 개선 시급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취급업소) 21곳 중 7개 업소만이 정부기관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의1 수준으로 대부분의 거래소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 채 서비스 중인 것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가상통화 취급업소 정보보호 수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업비트(두나무), 빗썸(비티씨코리아), 고팍스(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 디에스, 후오비 등 7개 거래소만이 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지난해 1~3월 점검에 평균 39개 항목이 취약했지만, 미비점 개선 권고로 개선된 것이다. 점검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과기부와 KISA는 나머지 14개 취급업소의 경우 보안 미비점 개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14개 중 7개 취급업소는 서비스 중단 예정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점검을 받

지 않았다. 1차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평균 61개 항목이 미흡하는 등 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망분리·접근통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인용컴퓨터(PC), 네트워크 보안 등 보안 체계 수립 및 관리도 미흡한 등 보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망분리·접근통제 미흡(12개 업소)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미흡(13개 업소) △백신·보안패치 미흡(15개 업소) △이상징후 모니터링 미흡(16개 업소) 등이다. 한편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관련해 2018년 기준 의무대상 4개 사업자(두나무, 비티씨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인증을 완료했다. 자율적으로 3개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해 1개 사업자(스트리미)가 인증을 완료하고, 2개 사업자는 인증심사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중진공,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선정 직무능력 중심 체계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중진공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확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내 면접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접교육 이수지만 면접관으로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평가역량 강화에도 힘썼다는 게 중진공 측 설명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대졸자만 채용되었던

사무지원 직무에 고졸 예정자와 전문대졸자가 8명 합격해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지원자가 학력에 관계없이 채용됐다”며 “또 민간기업에서 탐장급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44세 지원자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실력만 입증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한 과정을 운영해 정의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한샘 연중 캠페인 ‘나는 엄마입니다’ 미혼모·워킹맘 지원 사업

종합 홈인테리어 전문 기업 한샘이 2019년 연간 캠페인 주제를 ‘나는 엄마입니다’로 정하고 ‘세상의 모든 엄마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샘은 “불편한 재래식 부엌가구가 주를 이루던 70년대부터 현대식 입식 가구를 보급하며 어머니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응원해 가족의 행복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싱글맘’을 시작으로, ‘워킹맘’, ‘전업맘’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미혼모다. 한샘은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을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을 주로 하고, 총 20여 한부모 가정의 집을 새로 꾸몄다. 한부모



가정 돌봄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는 한부모 가정에 자립 정착금을 주고 자립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자립지원키트도 함께 선물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워킹맘’이다. 한샘은 ‘여성이 다니고 싶은 회사, 엄마가 행복한 회사’를 슬로건으로 여성 임직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에 단절되지 않고 회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6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어머니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까지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상향된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한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다.

또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도금액 확대는 2월20일까지 적용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한 명절

선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입국장 면세점’ 효과 보려면, 면세한도 증액 수반돼야

규제 풀어 소비 불씨 되살리자

② 면세점,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두 토끼 잡는다



국내 면세시장 20兆 규모 성장
中당국 보파리상 과세 변수로
‘내국인 매출 확대’ 대안 떠올라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조5000억 원, 신라 면세점은 4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쓸 것으로 전망되면서 면세업계는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 국내 면세시장은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최대 실적을 견인한 중국 ‘보파리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에게 과세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보파리상 방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세점으로서의 보파리상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카드가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국인 소비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내국인 매출 비중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전체 매출의 과반을 넘어섰다. 2017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출은 총 2조331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 매출은 1조2611억 원(54.1%)에 달했다.

정부가 면세한도를 증액할 경우 내국인 매

정부, 면세한도 인상안 검토
중견·중기로 입찰 제한하고
담배·명품 금지 등 규제 ‘한계’

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하고 면세한도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5년 전인 2014년 400달러에서 증액했다. 그러나 이 역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미국의 면세한도는 최대 1600달러(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일본은 20만 엔(약 1755달러)으로 국내보다 3배가량 많다. 업계에서는 면세한도가 1000달러가량으로 정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월 말 신설이 예정된 입국장 면세점도 면세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으로 입찰기업을 제한하고 담배와 명품 판매를 제한한 ‘보이지 않는 규제’가 변수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부족한 중견·중소 면세점들은 면세시장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운영 주체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대표 업종이 바로 면세점인 것이다. 과도한 임대료가 부과될 경우 낙찰받게 되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수입명품처럼 수익성 높은 품목을 취급할 수 없게 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中보파리상 면세점 순례 코스로…“없어서 못 팔죠”

日 롯데면세점 긴자점

타깃 마케팅 주효 年매출 두 배 이상 ↑
5000엔 이상 구매 시 면세혜택 확대
‘즉시 환급형’ 중소 사후면세점 성장

롯데면세점 긴자점 화장품 코너에는 ‘패진’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꽂혀 있었다. 지난해 12월 14일 긴자점에서 만난 매장 직원은 “물량이 입고되면 팻말을 바꾸기도 전에 이들 만에 다 팔리기 일쑤다. 개별 관광객들은 못 살 정도로 보파리상들이 제품 입고 시간을 서로 공유해 제때 찾아와 싹 쓸어간다”고 말했다.

2016년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으로 문을 연 롯데면세점 긴자점은 지난해 미츠코시 면세점을 제치고 일본 시내 면세점 1위에 올랐다. 흥행 비결은 중국 보파리상이다. 입점객은 중국인 50%, 일본인 30% 수준이지만 국적별 매출 비중은 중국인 80%, 대만 및 홍콩 10% 일본인 5%, 한국인 3%로 중국인이 압도적이다.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다. 매장 관계자는 “보파리상 1명이 미츠코시 면세점, 롯데 긴자점을 돌고 나서도 일일 할당량을 다 못 채우면 미츠코시 백화점까지 방문해 구매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롯데면세점 긴자점은 오픈 당시 일본인 대상 ‘시내 면세점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던 데에서 보파리상 대상으로 마케팅 방향을 전환했다. 출점 첫해인 2016년 매출이 200억 원에 그쳤으나 2017년 49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2배 넘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근 일본 사후면세점 라옥스(LAOX) 긴자점 본



점은 지난해 7월 폐점했다. 무리한 출점과 임대료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 긴자점의 선전이 더욱 돋보인다.

롯데면세점 긴자점의 약진은 일본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 덕도 크다. 일본은 2018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구매 금액이 5000엔(약 5만 원) 이상이면 상품 구분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에는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상품 혹은 화장품 및 식품 등 소모품을 구분해 각 품목당 5000엔 이상을 구매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환급대상자는 일본에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여행자다. 긴자점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 등을 목표로 계속해서 내수 관광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세 쇼핑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부가세와 소비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중소 규모의 사후면세점(tax free)이 중심이다. 사전면세점(duty free) 위주인 한국과 다른 점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도모, 내수 관광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세금을 제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별도로 세금 환급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사후면세점 수는 2017년 10월 기준 점포 수 4만2791개를 기록,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긴자점 역시 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특성에 발맞춰 사후면세 코너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쿄=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오픈 1년…아직 실적보다 고객 편의에 무게”

日 나리타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국인 해외 소비를 내수로 전환 기회
공항 자회사가 운영, 단계적 성과 도모

“(일본) 기내 판매 주류보다 구색이 다양하고, 담배 맛도 (한국에 비해) 일본 아이코스 맛이 더 좋다고 느껴져서 자주 구매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일본 나리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만난 케이스케(39) 씨는 비즈니스차 한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면서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나리타 공항 3개 터미널, 5개 면세점 중 한국인 T2 입국장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보니 매장은 항공기 도착 후 이동 경로에서 검역, 입국심사장 직전에 위치해 있었다. 드넓은 수하물 수취 공간 한편에 마련돼 일부러 신경 써서 찾아야 발견할 수 있다. 크기도 면세점으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 100㎡(약 30평)이다. 주류, 담배 품목이 판매되고 결제를 맡는 직원 1명이 배치돼 있다. ‘오모테나시’란 고도의 서비스 문화가 발달한 일본이지만 이곳 직



원은 별도의 안내 멘트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같은 항공기로 도착한 승객들은 대부분 수하물을 찾으러 가고 입국장 면세점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몇몇 승객들에게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대다수는 “입국장 면세점이 있었나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일본은 2017년 4월 입국장 면세점 허용이 담긴 세계 무역협정을 적용해 같은 해 9월 나리타 공항에 처음으로 입국

장 면세점 문을 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간사이 등 2018년 6월 말 기준 4개 공항에도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73개국 138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 3대 국제공항으로 불리는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인천공항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있다.

일본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행객 입장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수하물 찾기도 바쁜 게 현실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그동안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일본의 경우도 이제 1년이 좀 넘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주체는 나리타 국제공항(NAA)의 자회사 NAA 리테일링이다. 일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 초창기부터 공항 자회사가 운영해 단계적인 성과를 도모하려는 분위기”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전 세계적으로 매출 면에서 크게 흥행했다고 볼 순 없고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중견업체로 제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일본 면세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15년 산고 끝에 가까스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인데, 아직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항 외부 업체에 운영권을 넘기면 출혈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이꽃들 기자 flowerslee@

풍산홀딩스 앞세워 문어발식 내부거래 83%

(2017년 4분기 누적)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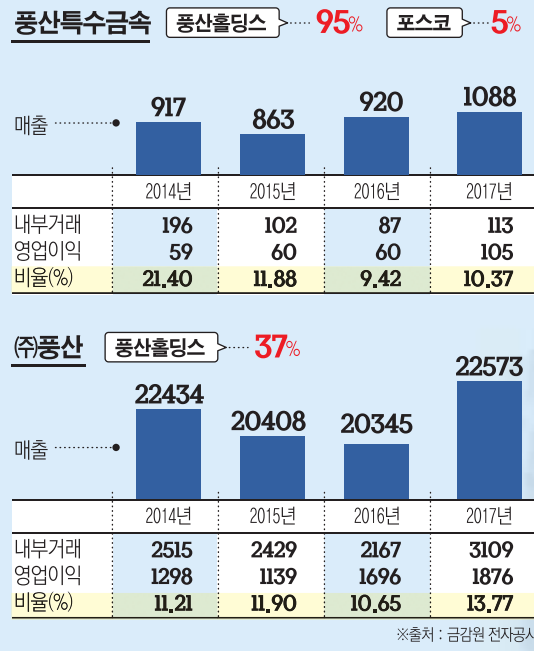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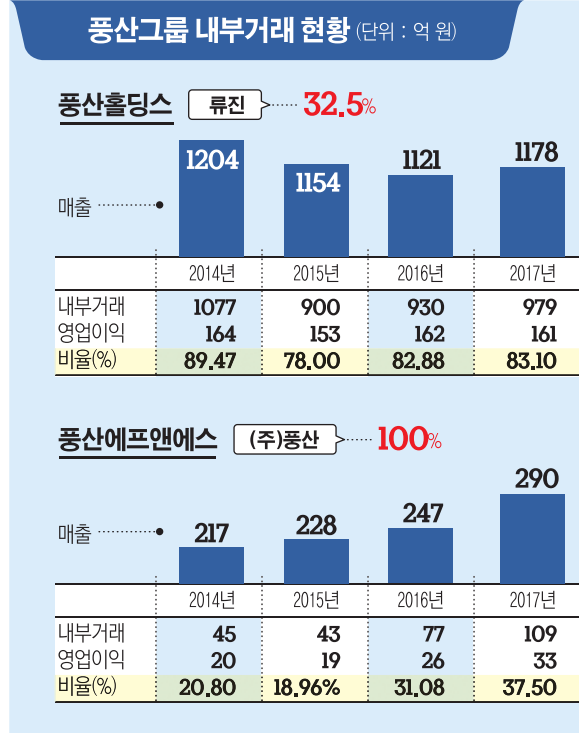
풍산그룹

풍산그룹은 풍산홀딩스를 지주사로 국내외 총 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매출은 적지만 지주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다수가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주사 풍산홀딩스의 매출이 지분 이익보다 사업 이익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풍산홀딩스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지분 3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의 친인척들의 지분은 1~3% 수준으로, 주력 계열사 대부분이 풍산홀딩스를 통한 류 회장의 지배하에 있다.

1968년 설립돼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풍산홀딩스는 2017년 11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특수관계자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83.10%에 달한다. 2014년 89.47%까지 올랐던 내부거래 비중은 이듬해인 2015년 70%대로 낮아졌지만 그 후로 다시 증가 추세다.

2008년 풍산산업의 제조 부문을 사업 부문으로 흡수한 풍산홀딩스는 지주사업과 함께 공구와 기계부품, 장비 및 포장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017년



지분 이익보다 사업이익 많아 계열사 제품·방산 용역 도맡아 2017년 매출 1178억 원 기록

매출 1178억 원 중 제품·상품·용역으로 올린 매출 비중이 약 88%일 만큼 사업회사로서 얻는 수익이 매우 크다. 용역 사업 중에는 지주사로서의 매출도 있지만

풍산홀딩스 측에 따르면 이는 72억 원 수준으로, 전체 용역 매출(558억 원) 대비 그리 크지 않다.

풍산홀딩스는 현재 방산산업 등을 진행하는 계열사 (주)풍산과 비철금속 소재 및 방산 부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풍산특수금속과 스테인리스 소재의 제조 판매, 동합금 소재 생산 판매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계열사들 사업에 필요한 제품과 방산 용역 등을 사업지

주사가 도맡아 하는 방식이다.

언급한 (주)풍산과 풍산특수금속 등의 계열사는 10%대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풍산에프앤에스의 경우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5년 18.96%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2년 새 두 배 이상 올라 2017년엔 37.50%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9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올랐다. 풍산에프앤에스는 조정된 기계부품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

사로, (주)풍산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던 풍산그룹은 지난해 들어 줄어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풍산홀딩스의 지난해 3분기 내부거래 비중은 68.91%다. 다만 2017년에도 3분기까지 76%였던 비중이 4분기 누적 83%까지 늘어난 전례가 있는 만큼 4분기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와토스코리아, 상법 위반 상근감사 선임 논란

황수연 상근감사 2013년 선임 당시 전무로 재직 6년간 감사제도 운영하며 주요 의안 100% 찬성

코스닥 상장사 와토스코리아가 상법상 자격 조건에 부적합한 상근감사를 선임해 6년간 감사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올해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러한 감사제도를 올바르게 바로잡을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토스코리아는 1인의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수연 씨로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2016년 재선임됐다.

와토스코리아는 자산 1000억 원 미만으로 상근감사의 선임 의무는 없지만 상근감을 두고 있다. 문제는 황 씨의 자격조건이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근감사 요건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황 씨는 2013년 3월 정기주주총에서 상근

감사로 선임될 당시 와토스코리아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명백한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조항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법 '411조(겸임금지)' 조항에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황 씨는 2013년 상근감사로 선임될 당시에 와토스코리아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선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황 씨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근감사직을 유지하면서, 활동 기간 동안 주요 의안에 대해 100% 찬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임될 당시 현직 전무이사로 활동 중이었다면 상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와토스코리아의있으나마나한감사인 이번뿐만이 아니다. 황 씨 이전에는 비상근 감사로 송공석 대표의 동생인 송복석 씨를 선임했다. 송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와토스코리아의 비상근 감사로 활동했다. 오너의 동생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독립성 훼손 논란을 우려해 대부분 상장사가 피하고 있다.

와토스코리아 관계자는 "(감사 선임과 관련해) 잘 몰랐던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정기주주총에서 상근감사에 대한 변화여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픽셀플러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中 수출

서라운드뷰모니터 시스템온칩 상용화

픽셀플러스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동차용 반도체 'PI5008'가 1분기부터 중국 업체로 납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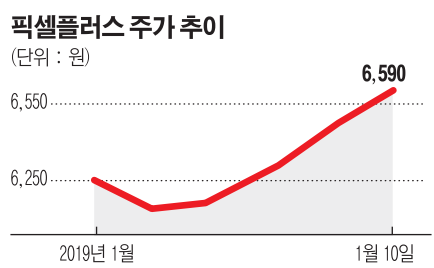
픽셀플러스는 지난해 9월 4세대 하이다 이내막레인지(HDR) 이미지신호처리프로세서(IPS)를 내장한 서라운드뷰모니터(SVM) 시스템온칩(SoC) PI5008K를 상용화했으며, 전장 모듈업체를 통해 PI5008K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회사 관계자는 "모듈 업체를 통한

품질 테스트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며 "1분기 내 중국 완성차 업체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매출 반영이 1분기부터 이뤄진다"라며 "PI5008'은 HDR 기능 내장을 통해 성능을 향상했으며 자체 설계 기술을 통해 원가를 타제품 대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픽셀플러스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출시하기 위해 약 500억 원을 투자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하드웨어 설계부터 펌웨어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개발



했다. 그 결과물이 SVM용 반도체인 PI5008이다.

픽셀플러스는 가격 대비 성능을 바탕으로 경차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한 딥러닝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 kjm@

텔루스, 광학렌즈 전문기업으로 재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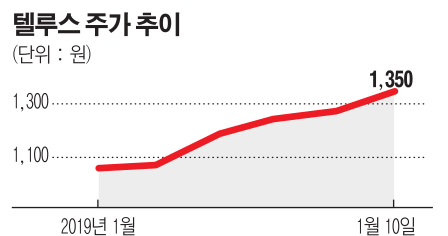
‘디오스텍’ 지분 인수 마무리 올 매출 36% 성장 750억 기대

코스닥 상장사 텔루스가 디오스텍 인수 자금 납입을 마치고 광학렌즈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한다.

텔루스는 10일 양수대금 잔금 약 98억 원을 납입하며 디오스텍 지분 100%(20만 4000주)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텔루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선봉 디오스텍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장훈철 디오스텍 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삼성전자 출신 등의 전문경영인과 함께 광학렌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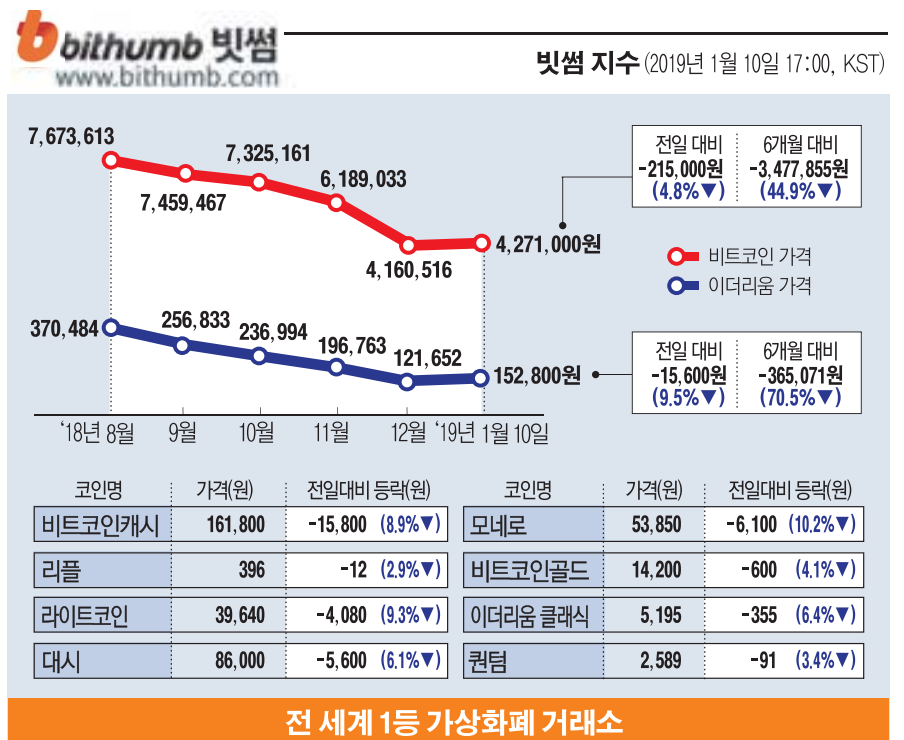
김선봉 텔루스 대표이사는 "생산공정 고도화, 수출 개선 등으로 올해 디오스텍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6% 성장한 75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주요 납품처가 올해 신규 출시하는 폴더형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보급형 라인에도 쿼드(4개)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렌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9년 300만 대, 2020년 14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소화와 렌즈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고맙습니다,

층간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를 항상 이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더 주의시킬게요!

이웃님!



더불어살아가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댕집으로 올라간 이유가 궁금하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캠페인 [층간소음]편 영상보기



금감원 중도금 대출 규제에 분양 차질 수지 스카이뷰 분양 ‘산 넘어 산’

“협약일 기준 LTV·DTI 적용”

1차 중도금, 올해 10월 20일
조정대상지역 해당 강한 규제
전매제한은 이전기준 적용 혼란

분양 승인이 철회됐다 재개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사진 투시도〉가 막판까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시행사인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10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에 중도금 협약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에 따라 단지에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지난해 11월 말 분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초등학교 문제로 승인 철회, 재개 과정을 겪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추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아 비규제 기준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속한



용인시 수지구를 비롯해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은행연합회 측에 중도금 대출 협약 일시를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단지도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단지의 1차 중도금 날짜가 올해 10월 20일이다. 이때는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효력(2018년 12월 31일)이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기준으

로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기존 LTV 70%, DTI 60%보다 낮아진 것이다. 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세대당 보증건수를 1건으로 제한한다. 중도금대출 규제는 2017년 8·2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등 다른 기준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기준으로 적용받는데, 대출 부분만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은행을 아직 선정하지 않은 단계”라며 “은행 선정 과정에서 은행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이달 10~11일에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17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일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서지희 기자 jhsseo@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줄인됐는데… 여야 이전에 법 개정안 통과 난항

9·13대책에 ‘60일→30일’
與 “시장왜곡 막기 위해 필요”
野 “국민 불편만 늘 것” 반대

이례적인 거래절벽 속에서 실거래 기록 하나하나가 주택시장 주요 지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실거래 신고 기간을 현재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거래 정보가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로 인해 ‘거래절벽’에 빠지면 서 실거래 정보 하나하나에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실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며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이 1억 원 넘게 하락한 매물들이 실거래로 잡히자 ‘가죽 간 증여’로 인해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인지 일반 구매물인지를 두고 시세 판단에 혼란이 벌어졌다. 여러 실거래를 통해 시세 판단에 도움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거래가 드물게 이어지

고 그마저도 신고가 늦게 이뤄져 주택 시장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기간 단축을 포함해 정부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거래 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신고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서 본회의 회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흐지부지됐다”며 “만약 2월에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린다면 본회의 회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근로자 안전모의 BLE 태그로 위험상황 때 위치 확인

현대건설, IoT 기반 안전관리 ‘하이오스’ 구축

현대건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oT(사물인터넷)기반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하이오스(HIoS:Hyundai IoT Safety System)’를 구축하고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하이오스(HIoS)는 각종 센서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BLE통신(저전력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캐너로 전송한다. BLE스캐너는 수집된 센서 정보를 LTE/5G, Wi-Fi 통신 방식으로 통합 플랫폼에 전송한다. 통합 플랫폼 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경보·알람을 발생시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하이오스는 건설업계 최초로 자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형태로 추가로 개발되는 단위 기술을 플랫폼과 연동해 안전관리 기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각 현장 요건 사항에 맞춰 최적화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는 근로자 위치확인, 장비협



현장 근로자가 센서가 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건설

작방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가스농도감지, 풍속감지, 흙막이 가시설 붕괴방지의 6종 기술이 내재돼 있다.

근로자 위치확인 기술은 근로자 안전모에 장착된 BLE태그 인식을 통해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에 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아파트 매매가 0.1%↓…9주 연속 하락

2013년 8월 이후 최대폭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락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인천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일 한국감정원이 1월 1주(1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8%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서울(-0.09%→-0.10%)은 대출규제 등 정부정책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 금리

상승 기조, 전세시장 안정 등 각종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며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전국(-0.08%) 주간아파트매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0.33%)가 원도심 내 역세권 등 거주선호도 높은 일부 지역은 보험세나, 인근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및 서울·성남 분당구 매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구성현 기자 carlove@

UNIQUEMI
제주 방립원
화산송이동굴 100일 발효
Uniquemi Premium Mask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UNIQUEMI
JEJU WILDFLOWERS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배출가스 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

법원 “시험성적서 조작 등 비난 받아 마땅 모두 유죄”
인증 담당 전·현직 직원들도 실형... 3명은 법정구속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BMW코리아 법인은 100억 원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인증업무에 관여한 엄모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직원은 이모 씨와 강모 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심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변경 내용을 보고한 것만으로 변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완화해줬다”며 “변경 보고 절차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범행을 저질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었다”면서도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를 인증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은 동기와 경위를 모두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BMW코리아 측이 “직원들은 단순히 유럽과 한국의 인증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막연한 관행을 따랐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BMW코리아에 앞서 1심이 마무리된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8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윤한술 기자 charmy@



“카풀 반대” 또 안타까운 죽음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 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다.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임 모(64)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두 번째 사례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 시절 전력도 포함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다.

1심은 유 씨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아닌 사실만으로 적용된다는 판례를 들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서면 증여 약속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배임”

대법, 구두 계약과 달리 서면일 경우 구속력 인정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한 서면 증여 계약 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

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이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로 자신의 목장 지분만큼인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 씨를 고소했다.

1, 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타인이 아닌 자기의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는 ‘타인의 사무’로 봤다. 구두로 증여를 약속한 경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 명 늘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

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썸썸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썸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썸썸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셀트리온·헬스케어, 나란히 ‘1兆 클럽’ 이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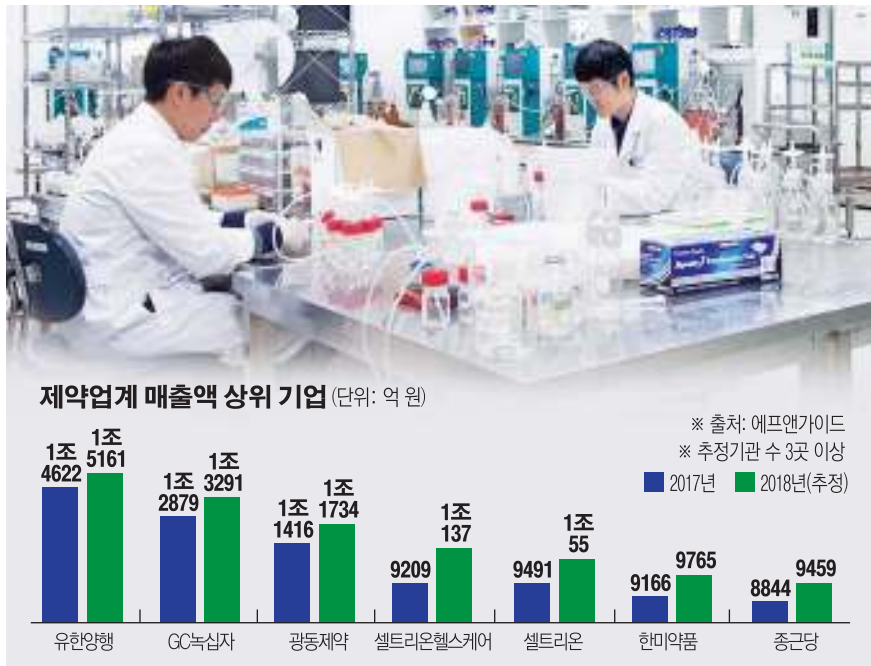
제약업계는 지금

지난해 매출액 1조 원 고지를 넘은 제약 사는 몇 곳이나 될까. 전통의 강자 유한양행이 굳건히 1위를 수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로 무장한 셀트리온의 약진이 주목된다.

10일 제약업계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8년 매출액 1조 원 달성이 유력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은 유한양행, GC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광동제약,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8곳이다.

먼저 업계 매출 1위 유한양행은 올해 매출액 1조5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며 일찌감치 ‘1조 클럽’ 입성을 알렸다. 유한양행은 2014년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매출액 1조 원 기록을 세운 후 5년 연속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압도적인 매출액은 전문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등 각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서 나왔다. 특히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안센에 1조4000억 원 규모로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기술수출한 데 이어 지난 7일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 신약후보물질인 길리어드에 기술수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구·개발(R&D) 중심 제약사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렘시마·트룩시마’ 유럽서 흥행하며 몸집 키워 유한양행, 지난해 3분기 매출 1兆 넘어서며 ‘5년 연속’ 선두 녹십자·광동 ‘호실적’…한미·종근당·대웅제약 실적 촉각

GC녹십자 역시 3분기 누적 매출 9882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 자리를 맡아냈다. 2017년 매출액 1조2879억 원을 기록한 GC녹십자의 지난해 매출액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는 1조3291억 원이다. 다만 국내 및 해외의 백신 경쟁이 심화하면

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광동제약도 2016년 이후 3년 연속 1조 클럽 가입이 전망된다. 지난해 매출 컨센서스는 1조1734억 원으로, 2017년보다 2.79%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식음료 매출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로서의 정체성은 모호하다.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조 클럽 진입 여부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컨센서스는 1조55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보다 조금 많은 1조1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각각 9000억 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와 ‘트룩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렘시마는 국내 단일 의약품 중 최초로 글로벌 연간 처방액 1조 원을 돌파했다.

2014년 매출액 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셀트리온은 2015년 6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17년에는 단숨에 9421억 원을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연평균 성장률은 40%를 웃돈다.

한편 한미약품과 종근당, 대웅제약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누적 매출액 7222억 원을 기록한 한미약품의 컨센서스는 9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근당(컨센서스 9459억 원)은 지난해 7월 출시한 개량 신약 ‘에소두오’를 포함해 신제품이 성장하면서 4분기 호실적을 거뒀을 것이라 기대감이 높다.

유헤은 기자 euna@

건강한 픽템

리파 그레이스 헤드 스파

집에서 두피관리
탈모 미리 잡는다



셀프케어의 인기로 ‘뷰티디바이스’를 활용해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홈케어’가 열풍이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8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스트레스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탈모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두피 관리 홈케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혈행을 높여주면 두피와 모발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두피 탄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두피와 연결된 얼굴 탄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코리아테크의 ‘리파 그레이스 헤드 스파(ReFa GR-ACE HEAD SPA)’는 두피 마사지와 클렌징이 가능한 두피 전용 디바

두피 마사지·클렌징 전용
콤팩트 3D 롤러 움직임으로
혈행 개선 효과…탄력 생겨

이스다. 전문 에스테티션의 손기술이 적용된 콤팩트 3D 롤러의 움직임은 엄지손가락을 피부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엄지 회전 지압’ 동작을 구현했다. 동시 회전하는 4개의 롤러는 15도 경사를 만들어 두피를 연속으로 기본 좋게 잡아 올려 마사지 효과를 높인다.

이 기기는 방수 구조로 제작돼 목욕 또는 샤워 시 사용할 수 있다. 두피 밀착력이 높아 마사지용으로 적합한 ‘니딩 브러시’와 얇고 촘촘한 돌기로 삼푸 시 노폐물 제거를 돕는 ‘클렌징 브러시’로 구성돼 필요에 따라 교체해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분당 220회의 회전으로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로우 모드’와 분당 240회 회전으로 힘 있게 자극하는 ‘하이 모드’를 선택해 개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두피 케어로도 탈모 및 볼륨 저하, 두피 트러블 등 헤어 문제 해결 및 얼굴 탄력도 관리할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에서 손쉽게 리파 그레이스 헤드 스파를 이용한다면 두피 탄력을 높이고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들의 피로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JP모건 콘퍼런스서 위상 높인 ‘K-바이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CMO 사업 현황 발표
LG화학·한미약품은 신약 글로벌 임상 확대 계획 밝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나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 기술력과 미래 청사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열린 JP모건 콘퍼런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메인 트랙을 배정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태한 사장이 나서 올해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19년 1월 현재 27건의 의약품위탁생

산(CMO) 수주와 14건의 위탁개발·위탁연구(CDO·CRO) 프로젝트 등 총 41건을 수주했다”면서 “2019년 말까지 CMO는 12건, CDO·CRO는 10건 이상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총 생산 규모의 25%까지 확보한 3공장의 수주 물량을 연말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미국 보스턴에 연구법인인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신약 과정의 글로벌 임상 진행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에 신약 연구 기지를 구축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곳에서 올해 자체 개발 신약 과제인 통풍치료제와 염증성질환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을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발표자로 나선 손지용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장은 “미국 내 연구 거점을 활용한 현지 임상개발과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에 신약 연구 기지를 구축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곳에서 올해 자체 개발 신약 과제인 통풍치료제와 염증성질환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을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발표자로 나선 손지용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장은 “미국 내 연구 거점을 활용한 현지 임상개발과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기내서부터 현지시간 맞춰 생활 ‘시차적응’ 이상無

헬스포커스

효과적인 시차장애 극복법

장시간 낮잠 가능하면 피하고
외부활동 통해 규칙적 식사

해외 여행을 하면서 시차 장애로 불면증, 두통, 피로감에 시달리는 여행객들이 많다. 시차 장애는 비행기를 타고 적어도 2개 이상의 시간대(time zone)를 이동하게 될 때 도착 장소의 현지 시간과 우리 몸의 생체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차 장애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 신체적 괴로움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희호 교수가 전하는 효과적인

시차장애 극복 방법을 알아봤다.

◇시간 관리 = 시차 장애의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시차 장애로 인한 모든 증상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간대(time zone)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략 하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시간의 시간대를 이동한다면, 7일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경우 출발 3~7일 전부터 미리 도착 장소의 현지 시간에 맞춰 적응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쪽(미국 방향)으로 간다면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앞당겨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서서히 전체적인 수면·각성 리듬을 앞당긴다.

비행기 안에서도 도착 장소의 현지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최 교수는 “현지 시간에 맞춰 가벼운 운동, 간단



한 식사, 수면 등을 적절히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면제·카페인 섭취 = 각성효과가 있는 카페인 섭취도 도움이 된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낮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잠들기 5~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멜라토닌이나 수면

제를 적절히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 교수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잠들기 전 멜라토닌이나 수면제를 복용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여행 전에 전문 의사와 구체적인 복용법을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쉽게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시차 적응에 방해가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현지에서 낮시간 활동 = 현지에서는 낮 동안 가능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현지 식사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신체의 수면각성 리듬을 좀 더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시간 낮잠은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야 한다.

그 밖에 빛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 교수는 “동쪽(미국 방향)으로 갈 때는 가능한 오전부터 빛을 보는 것이 좋고, 서쪽(유럽 방향)으로 갈 때는 가능한 오후 늦게까지 빛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올 댓 트립 ① ‘황금돼지해’ 맞아 떠나는 ‘豚 투어’

‘국민외식’ 삼겹살, 맛은 다 비슷?… 모르는 말쑼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집이 돼지를 길렀고, 돼지꿈은 길몽이라며 크게 반겼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돼지가 새끼들을 품에 안고 젖을 빨리는 사진을 걸어놓거나, 새해 첫 돼지날(上亥日)에 문을 열어놓는 등 돼지를 부와 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돼지해를 맞아 행운과 재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 ‘돼지투어’를 추천한다. 전국 곳곳에 돼지의 기운을 가득 담은 이야기와 체험지가 여럿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황금 돼지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 명소를 ‘1월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 ‘돈(豚·돼지)투어’ 주제는 온몸으로 돼지를 느끼는 ‘먹방’이다.

청주 삼겹살거리

0.8cm 두툼한 두께에 간장 소스 새콤한 ‘파절이’ 입맛 사로잡아

◇거리 이름이 삼겹살인 이유가 있었네… ‘청주 삼겹살거리’ = 두툼한 생삼겹살, 간장 소스, 지글지글 불판에 고기 익는 소리… 충북 청주시 서문시장에는 ‘삼겹살거리’가 있다. 삼겹살 식당이야 흔하다 흔하지만, ‘삼겹살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 이곳에는 삼겹살 식당 15곳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삼겹살 먹자골목이 들어선 서문시장은 청주 시민에게 향수 어린 장소다. 버스터미널이 있던 서문시장 일대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두툼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곁치려고 부담 없이 찾던 공간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하며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한때 육거리종합시장 못지않게 번성했던 서문시장은 유동인구가 감소하며 동력을 잃어 공동화 현상을 겪었다. 상인들이 이전하고, 삼겹살 식당도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다. 2012년 삼겹살 식당이 의기투합해 삼겹살거리로 재탄생했다.

시장 골목은 리모델링을 거쳐 간판과 조형물이 새롭게 들어선 추억의 삼겹살 특화 거리로 바뀌었다.

초창기 7곳이던 삼겹살 식당은 15곳으로 늘었다. ‘충주돌구이집’, ‘삼남매’, ‘야간비행’, ‘금순이은순이’, ‘함지락’ 등은 삼겹살거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식당이다.

◇‘파절이’ 원조는 청주?… 삼겹살 삼합 먹으러 오세요 = 청주에서는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를 간장 소스에 담갔다가 굽는다. 소금을 뿌려 먹는 데서 간장 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식으로 변모한 것이 청주 삼겹살의 트레이드 마크다.

일본식 소금구이를 뜻하는 ‘시오야키’ 간판을 내건 청주 삼겹살집에서는 예부터 간장 소스가 함께 나왔다. 간장 소스는 수돼지를 식육으로 사용하던 시절, 잡념새를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파절이에 묵은지를 곁들이면 삼겹살 삼합이 완성된다.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없애려고 쓰기 시작했다. 달인 간장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다. 삼겹살거리의 식당들은 조선간장에 생강, 당귀, 계핏가루, 마늘, 녹차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어 특유의 소스를 만든다.

국산 생고기를 숙성시켜 사용하는 것은 삼겹살거리 식당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원칙이다. 삼겹살은 0.8cm 정도로 두툼하게 썰어 내놓는다. 너무 얇으면 구울 때 육즙이 쉽게 빠져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주 삼겹살거리를 제안하고 ‘썰면 쓴, 삼겹살 이야기’를 발간한 함지락의 김동진 대표는 “삼겹살은 짜글이와 함께 청주의 대표 음식”이라며 “선홍빛이 선명한 등살에, 구웠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나야 좋은 삼겹살”이라고 강조한다.

‘파절이’는 간장 소스와 함께 청주 삼겹살의 맛을 돋운다. 이곳 상인들은 파절이

가 청주에서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식초, 설탕,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파절이는 두툼한 삼겹살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여기에 묵은지까지 곁들이면 ‘간장 소스 삼겹살+파절이+묵은지’로 삼겹살 삼합이 완성된다.

춘향에도 맛봤을까

남원, 추어탕 만큼 흑돼지 인기
英 원산지 ‘버크셔종’도 별미

◇춘향전 말고 돼지고기를 기억해… ‘전북 남원 운봉 지리산 흑돼지’ = 남원 하면 반사적으로 춘향전을 떠올리기 쉽다. 광한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사실 춘향전과 광한루



청주 삼겹살거리 원조 ‘금순이은순이’



간장소스에 담갔다 굽는 청주 삼겹살



흑돼지 모든



안주로도 좋은 ‘흑돼지 생햄’

를 빼면 남원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는 사람은 안다. 남원시는 추어탕 다음으로 흑돼지를 내걸고 있다.

남원을 여행하다 보면 추어탕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식당이 ‘흑돼지’ 간판을 단 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의 민족’으로 불릴 만큼 삼겹살을 사랑한다. 그중 흑돼지 삼겹살의 인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흑돼지 삼겹살은 시장이나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반 삼겹살보다 10~20% 비싸게 팔린다. ‘프리미엄’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남원에 왔다면 일단 흑돼지를 맛보고 여정을 떠나자.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IC로 빠져 나오면 길 양쪽에 흑돼지고기를 파는 집이 여럿 보인다.

이 가운데 한 식당은 영국 버크셔주 원산의 버크셔종(Berkshire) 흑돼지 고기를

내놓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모듬구이를 주문하면 삼겹살과 목살, 앞다리, 향정살, 가브리살, 갈매기살이 담긴 정반을 내놓는다.

흑돼지, 백돼지와 달라

불포화지방산 오리보다 풍부

미디엄으로 먹으면 더 맛있죠

◇“흑돼지는 덜 익은 게 제맛”… 놓칠 수 없는 ‘감칠맛’ = 직원은 “고기가 부드러워 목살에 칼집을 낼 필요가 없다”며 “이 칼집은 보기 좋으라고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백돼지는 150~180일 키워서 도축합니다. 출하할 때 90kg 정도죠. 100kg이 넘으면 등 쪽 지방이 너무 두꺼워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흑돼지는 200일 이상 지나야 그 크기가 나와요.” 비쌀 수밖에 없다.

붉은색이던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간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고 기름이 흘러나온다. 흑돼지는 백돼지와 달리 기름이 투명하다. 직원에 따르면, 한 연구에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오리고기보다 많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자 직원이 권한다. “조금 덜 익어도 됩니다. 쇠고기를 미디엄으로 익혀 먹잖아요. 그보다 살짝 더 익히면 됩니다.”

흑돼지 고기는 완전히 익히지 말고, 적당히 붉은빛이 돌 때 먹으면 더 맛있다. 흑돼지 고기는 포도당과 유리아미노산이 다른 돼지고기보다 풍부한데, 완전히 익히면 이 감칠맛이 사라진다.

앞다리와 뒷다리도 쫄깃하다. 이 부위는 질기고 푸석푸석해 대부분 찌개용으로 팔리지만, 흑돼지 다리는 구이용으로 판매된다. 다른 돼지고기보다 근섬유가 가늘고 촘촘히 박혀 더 부드러다

◇뒷다리는 맛 없다고? 생햄 먹어보면 생각 달라질 걸 = 버크셔종으로 생햄도 만든다. 생햄은 스페인의 전통음식 하몽이라고 보면 된다. 운봉읍 화수리에 하몽과 살라미를 만드는 곳이 있다. 돼지 몸무게의 30%를 차지하는 뒷다리, 후지라 불리는 이 살은 두루치기나 찌개에 넣는 썬 부위지만, 2년 정도 숙성을 거치면 최고급 식재료로 다시 태어난다. 짹짹하면서도 은근한 풍미에 자주 손이 간다.

먼저 늦가을에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다. 수돼지는 살짝 냄새가 나기 때문에 250~300일 정도 된, 150kg 정도 나가는 암돼지만 쓴다.

천일염으로 한 달 정도 절인 뒤에는 깨끗이 씻어 염도를 낮춘다. 겨울에 온도 12℃, 습도 75~85%를 유지해야 풍미가 제대로 산다. 봄이 되고 기온이 20℃ 정도로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발효가 시작된다.

김소희 기자 ksh@

알아두는 여행 tip



‘청주 삼겹살거리’ 포토존.

청주 삼겹살거리 ‘삼소데이’ 아시나요

겨울 해가 지는 오후 5시 무렵, 청주 삼겹살거리에 불이 들어오며 본격적인 저녁 영업이 시작된다. 간판에 돼지 그림이 있고, 골목 한쪽에는 돼지 모형과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삼겹살거리에서는 매달 첫째 토요일

이면 삼겹살과 소주가 어우러진 ‘삼소데이’ 행사가 열려 버스킹을 비롯한 문화 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펼쳐진다. 중앙 도로에 설치된 좌판에서 돼지고기김밥, 삼겹살햄버거 등 퓨전 돼지고기 음식을 선보인다.

최근에는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해 ‘와우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청주 삼겹살을 전국에 알리는 야심 찬 계획도 진행 중이다.

청주 삼겹살거리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며, 일부 식당은 이튿날

매달 첫 토요일… 버스킹 등 문화행사 펼쳐
돼지고기김밥·삼겹살햄버거 퓨전도 선보

새벽 1시까지 영업한다.

삼겹살 값은 200g에 1만2000원 선이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주차권으로 서문시장 주차장, 인근 홈플러스 주차장, 청주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輸銀 첫 여성 본부장’ 김정자 중소기업금융본부장

“따뜻한 정책금융 실현할 것”

대학원 졸업 후 1987년 입행

2012년 첫 여성 부서장 오르고

작년 여신심사·신용평가 단장에

“중소중견기업 정책 맡아 자부심”

수출입銀 “공개 모집·투명한 심사

남녀차별 없이 능력 위주로 발탁”

‘여성 최초 부서장’, ‘여성 최초 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최초의 여성 본부장에 이름을 올린 김정자(사진) 신입 중소기업금융본부장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여럿 붙는다. 다른 업종보다 보수적이고, 특히 ‘유리천장’이 두꺼운 금융권에서 여성으로서 보란듯이 승승장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은은 김정자 심사평가단장을 중소기업금융본부장에 승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수은 창립 이래 여성이 본부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자부심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금까



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따뜻한 정책금융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 온기와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공학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학

위를 취득했다. 1987년 수은에 입행한 뒤 법규부, 연불수출금융본부, 무역금융본부, 특수여신관리실, 프로젝트금융부, 해외투자금융부 등을 거쳐 2012년에는 글로벌협력력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여성이 부서장급 자리에 오른 것은 수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미래산업금융부장을 거쳐 2016년에는 수원지점장을 역임했다.

수은 관계자는 “공개 모집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한 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과정을 거쳐 김 본부장이 임명됐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윤리성, 리더십, 소통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남녀 차별 없이 발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김 본부장은 대규모 여신심사와 거래기업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심사평가단장에 선임됐다. 기존 국책 은행들에는 남성 인력을 여신 업무에 투입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있었다. 당시 은성수 행장은 심사평가단장뿐만 아니라 여신제도팀장, 정보시스템부장, 인프라금융팀장, 외화자금1팀장 등에도 여성 인력을 전진배치했다. 이번에도 능력 위주 발탁 인사를 통해 은행장의 신뢰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봉사로 사회생활 첫발 내딛는 새내기들



코오롱, 저소득가정 아동 찾아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뗐다.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은 10일 경기도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신학기 용품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기부하는 ‘드림팩 기부전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오롱사회봉사단과 국제구호 NGO인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이 캠페인은 올해 그룹에 입사해 연수 중인 신입사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드림팩은 전국 50개 지역 아동센터 1480명의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엔지니어링은 쪽방촌서

2019년도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 51명은 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등유 2000리터와 연탄 3000장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쪽방촌 주민들의 겨울을 책임질 연탄을 한장 한장 정성스럽게 직접 배달했으며, 보일러를 때는 데 사용될 등유도 200리터씩 10가구에 각각 배달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9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된 ‘LG-카이스트 영어과학 캠프’에서 학생들이 LG전자 클로이 로봇을 활용해 모형 집 속 가전제품을 제어해 보고 있다. 사진제공 LG

LG, 카이스트와 ‘영어과학 겨울방학 캠프’ 진행

LG는 8일부터 대전 카이스트에서 ‘LG-카이스트 사랑의 영어과학 겨울방학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프는 LG사이언스홀이 2009년부터 10년째 담당하고 있다.

사랑의 영어과학 캠프는 과학에 재능이 있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카이스트 교수진 및 재학생 등 10여 명이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실험 및 실습 중심의 과학 교육을 하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

행된다.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LG전자 클로이 로봇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모형 집 속 조명과 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면서 미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은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이 전시된 미국 LG사이언스파크를 견학하고, 카이스트 재학생들에게 학업, 진학 및 진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중기유통센터 대표에 정진수 前 중진공 부이사장

美 메트라이프 차기 회장에 미셸 칼라프 내정

중소기업유통센터는 12대 대표이사로 정진수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선임 대표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인하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석사, 첨단정밀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해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중소기업연수원장, 경영관리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정책총괄부터 내수 판로 개척·수출 마케팅 연계 지원 등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평가받는다.

정 대표는 “지난 35년간의 정책 지원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의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미국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MetLife)는 새 회장에 현 미국과 유럽·중동(EMEA) 지역 사장인 미셸 칼라프(Michel A. Khalaf)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10일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칼라프 사장은 5월 1일 퇴임하는 스티브 칸다리안 회장의 후임을 맡게 된다. 칼라프 내정자는 2010년 메트라이프에 입사해 EMEA 사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는 미국 사업부를 총괄했다.

그는 “메트라이프는 고객, 임직원, 주주를 위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많은 회사”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고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인사

◆통계청 <과장급> △통계정책과장 빈현준 △통계데이터기획과장 서운주 △공간정보서비스과장 채관병 △경제통계기획과장 최정수 △경제총조사과장 김상진 △산업동향과장 김보경 △고용통계과장 정동욱 △조사기획과장 공미숙 △지역통계총괄과장 이민경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황호숙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조운규 △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권태원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장 김용하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장 홍성희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김정섭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신호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송일규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서상록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장 송재원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한희석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문정철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미애

◆금융감독원 <국·실장 직위부여> △인재교육원 실장 박선희 △비서실장 강선남 △법무실 국장 장진택 △연금금융실장 박학순 △금융그룹감독실장 이영로 △핀테크지원실장 장경운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 정진동 △신용감독국장 조성민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김성우 △여신금융감독

국장 이상민 △상호금융감독실장 이희준 △저축은행검사국장 박상춘 △여신금융검사국장 황남준 △자산운용감독국장 이경식 △금융투자검사국장 황성운 △공시심사실장 박봉호 △자본시장조사국장 김영철 △회계관리국장 최상 △회계기획관리실장 김정흠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진해 △분쟁조정2국장 김상대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김철웅 △인천지원장 원일연 △경남지원장 안병규 △제주지원장 도종택 △전북지원장 김용실 △충북지원장 이용관 △강릉지원장 서창석 △뉴욕사무소장 유창민 △런던사무소장 이주현 △북경사무소장 김재경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김종민 △총무국장 서정호 △인적자원개발실장 김태성 △제재심의국장 이재용 △국제협력국장 운영식 △은행감독국장 이준수 △일반은행검사국장 이근우 △특수은행검사국장 권창우 △저축은행감독국장 김명주 △상호금융검사국장 엄주동 △자산운용검사국장 서규영 △기업공시국장 이관재 △조사기획국장 김충우 △회계심사국장 장석일 △회계조사국장 정규성 △보험감리국장 강한규 △생명보험검사국장 박상욱 △손해보험검사국장 박성기 △보험영업검사실장 김소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오홍주 △금융교육국장 정영석 △감사실 국장 홍길 △감찰실 국장 이진석 △대규경북지원장

김윤진 △광주전남지원장 박종수 △대전충남지원장 김영진

◆금융보안원 <본부장> △경영관리본부 김호술 △사이버대응본부 임재욱 <부서장> △총무부 김장기 △금융보안교육센터 박성수 △금융보안관제센터 이만호 △침해대응부 이상록 △보안평가부 임구락 △보안연구부 박진석 △융합보안부 이문규 △금융데이터전략부 조규민 △감사실 임왕섭 <수석팀장> △경영기획부 황준호 △총무부 김영태 △침해대응부 이병훈

◆전북은행 <센터장급> △익산지역금융센터장 김병조 △군산지역금융센터장 이영태

◆KB국민카드 <승진> ◇부장 △체크카드사업부 박종섭 △카드금융부 조태재 △마케팅추진부 이기정 △고객마케팅부 임우순 △디지털혁신부 이강혁 △디지털솔루션부 김도근 △디지털개발부 정준호 △회원심사부 박용휘 △신용기획부 정병두 △총무지원부 황해수 ◇실장 △홍보실 박진웅 <전보> ◇부장 △영업추진부 이용섭 △기업카드사업부 백성식 △전략영업부 이경수 △마케팅기획부 신동원 △고객서비스부 황상만 △디지털채널부 이재연 △데이터마케팅부 제창희 △상품기획부 황주현 △전략기획부 성백준 △채권관리부 정원석 △소비자보호부 이은경

GS홈쇼핑 ‘소셜벤처 창업 특강’

연남방앗간 이희준 대표 등 4명

GS홈쇼핑은 ‘소셜벤처 창업 특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강은 17일 오후 1시 서울시 역삼구 테헤란로의 ‘마루 180’에서 진행된다.

‘소셜벤처 창업특강’은 GS홈쇼핑이 지난해부터 사회공헌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업 ‘소셜임팩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정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현지 창업자 4명에게 직접 창업 관련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강의를 △디자인 브랜드 ‘공공공간’ 신윤에 대표의 ‘비즈니스의 시작을 위한 창업가의 관점’ △개발도상국의 상품 개발로 행복을 전하는 케이오에이(K.O.A) 유동주 대표에게 듣는 ‘사회혁신 아이템 개발’ △디자인 업체 ‘바이팜’ 김민욱 대표의 ‘사회혁신 아이템 고도화’ △참기름 소믈리에로 유명한 연남방앗간 이희준 대표의 ‘사회혁신 제품 마케팅 및 브랜딩’으로 구성됐다. 남주현 기자 jooh@

부음

▲이수생 씨 별세, 이금갑(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신월지국장) 씨 부친상 = 10일,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2-2225-1004

▲황완근 씨 별세, 황희숙(춘천 소양중교사)·희경(회사원)·희정·희선 씨 부친상, 강병로(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정호상(비컴크리에이티브 대표) 씨 장인상 =

10일,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10-5363-7726

▲김덕만 씨 별세, 성근(서울대 자연대 교수)·성준(J&C 대표) 씨 부친상, 송인복·계인숙(경남정보대 교수) 씨 시부상 = 9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11시 30분. 02-2072-2014

▲홍순모 씨 별세, 홍국표(사업)·현표(힐러넷 대표) 씨 부친상, 박소영(중앙일보 편집국 행정국장) 씨 시부상 = 10일, 삼척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033-570-7450

이슈&인물

'디스플레이 코리아' 이어가려면

서광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

“中에 밀린 LCD…OLED가 답이다”

“중국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2017년 2월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환경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우리나라는 한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었다. 1990년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두였던 일본이 200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유증으로 투자를 줄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LCD(액정표시장치) 분야에서 적극 투자했다. 그 결과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세계 최초로 5세대 LCD 양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시나브로 LCD 분야 선두 자리에 올랐다.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LCD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33%)이 우리나라(2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서 부회장은 중국의 급성장 주요 배경으로 정부 지원을 꼽았다. 중국 정부는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패널 공장을 설립할 때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비 투자비, 개발자금, 토지 등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중국 업체는 신규 시설 투자 때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과거 BOE는 중국 허페이시에 10세대 LCD 공장 건설 투자비용으로 7조 800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 3조 5000억 원, 은행 및 투자펀드에서 3조 8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BOE가 사용한 금액은 5000억 원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대형 LCD 시장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2012년에 32인치 이상 LCD 패널의 수입 관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다”며 “2014년에는 LCD 핵심 부품소재인 유리 기판(4%→6%), 편광판(6%→8%) 수입 관세율도 올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후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은 올해 10.5세대 LCD 공장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BOE는 1분기에 10.5세대 LCD, HKC는 2분기에 8.6세대 LCD 신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 부회장은 10.5세대 공장 가동 움직임이 올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상·하반기 LCD 공급과잉률이 각각 10.6%, 12.7%였다면 올해 상반기는 18.4%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패널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을 무조건 ‘흐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서 부회장은 강조했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거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OLED 채용이 증가하고,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이 3분기 양산을 앞두는 등 OLED 시장에서 성장 요인은 있다”고 내다봤다.

LCD 분야에서 중국을 쉽게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OLED에 집중하고 있다. LCD와 달리 OLED는 유기물인 OLED 입자를 패널에 붙이고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노후가 필요하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로 OLED를 지목했다.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4일 서울 강남구 두개비빌딩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00년대 정부·기업 힘합쳐
LCD 투자 세계 1위 올랐듯
中, 정부 주도 10.5세대 진입

올해 공급과잉 우려되지만
스마트폰·TV 등 OLED 확대
삼성·LG 매출 비중도 커져

최근 기술인력 유출사건 빈번
위기극복 해법은 ‘기술 혁신’
퀀텀닷·폴더블·롤러블로 가야

서 부회장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2017년 전체 매출 가운데 OLED 비중은 각각 68%, 7%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삼성디스플레이(73%), LG디스플레이(14%)의 OLED 매출 비중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세계 OLED 시장의 97.1%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현재 OLED 분야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스플레이 업체 CSOT를 산하에 두고 있는 TCL과 함께 ‘광동성 프린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혁신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센터는 현재 OLED 관련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BOE와 비지녹스는 올해 1분기에 6세대 OLED 신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 부회장은 “한중의 OLED 기술격차 수준을 많게는 5년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는 1년으로 분석한다”며 “2019년 중국 업체들이 4개 OLED 신규

공장을 가동하면, 한국은 중국과 OLED 경쟁 단계에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OLED 기술파일을 중국 업체에 건네려다가 적발당한 적이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으로 이직을 시도한 전직 직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서 부회장은 “인재 처우 개선 및 관련 산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며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인력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다”고 아쉬워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서 부회장은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OLED 분야에서는 아직 중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이 플렉시블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는 퀀텀닷, 폴더블, 롤러블 등 한 단계 높은 시장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 부회장의 판단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1억 원을 투자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구성 및 작업 환경에 대한 보고서 등 영업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국제 표준 선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사설

혁신성장·일자리, 기업자유 없으면 공염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은 영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경제, 정치와 사회 등 각 분야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질의에도 비교적 소상히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며, 분배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비전도 제시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혁신, 이를 위한 규제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그러나 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성장도 함께 역설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끝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허하고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 집권 3년차다. 취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동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사정은 악화일

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작년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000명에 그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래 최악이었다.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 3000명,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3.8%로 치솟았다. 지난해 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같은 대형 충격도 없었는데 1년 사이 취업자 증가폭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정책 실패 말고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용창조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사실상 외면하고,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 탓을 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과 상용근로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운용 계획의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노동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마음대로 기업할 자유만 높이면 새로운 산업 개척,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절로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한다. ‘함께 잘사는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혁신성과 일자리 창출의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규제 혁파 등 기업 정책에 두고 그것부터 바꾸는 데 집중하면 된다.

한 킷



얼어붙은 강바닥에 반영된 새해 소망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그림이 나올 때가 있다. 일출을 보기 위해 다리 위에 길게 늘어서서 사람들의 표정보다 때론 그들의 뒷모습에서 설렘이 느껴진다. 그들의 두꺼운 옷차림보다 얼어붙은 강에 반영된 모습이 그날의 날씨를 더 잘 말해 준다. 잠시만 뒤로 물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살펴볼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열정가득 청년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끝없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도록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KB와 함께 이룬다] **Dreaming Job**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5년간 1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직·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일으켜 예비 취업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